

다양성과 통일성으로 살펴보는 언어정책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Language Policy Considering Diversity and Unity -Focused on the Case of Japan-

양민호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HK연구교수

minhojinsei@gmail.com

1. 들어가며

글로벌화가 진행되면서 사람과 자본 그리고 물건의 이동은 비교적 자유로워졌다. 이와 함께 언어의 이동도 많아졌다. 언어의 이동이라는 것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과 물건의 이동과 함께 움직이기도 한다. 하지만 현재는 인터넷이라는 수단을 통해 전 세계가 하나의 생활문화권이 되면서 훨씬 다양한 형태로 이동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계적으로 다양한 문화콘텐츠 스트리밍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각국의 문화콘텐츠 구독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유튜브, 넷플릭스, 구글, 아마존 등을 통해 지구 반대편의 영화나 드라마, 음악 등을 손쉽게 접할 수 있다. 대한민국 한류 문화콘텐츠의 경우, 현재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각 국가의 소프트파워(Softpower)가 거세지면서 언어정책 역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국어정책을 어떻게 펼치느냐에 따라 향후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 주도권을 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국립국어원에서는 언어정책 전반에 걸쳐 활용하기 위해 2005년부터 5년 주기로 '국민의 언어의식 조사'를 진행해 오고 있다. 이 조사에서는 첫째 국어정책에 필요한 국민의 언어사용 실태를 조사하고, 둘째 사회나 환경의 변화를 동반한 언어의식 추이를 파악하며, 셋째 국민의 언어생활과 밀접한 국어정책을 입안하고 개선안을 반영시켜 국민에게 홍보한다는 3가지 목적을 가지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의 언어의식 조사를 통해 그동안 언어정책을 되돌아볼 수 있으며 현재와 미래의 언어정책 제안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처럼 한국에서 5년마다 실시되는 국민의 언어의식 조사가 일본에서는 한국과 유사한 형태로 1995년부터 매년 행해지고 있다. 1995년부터 현재까지 일본에서 축적된 자료와 언어조사 의도를 살펴보면 한국의 언어정책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발표에서는 해외사례인 일본의 '국어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일부를 소개하고, 언어 정책기관인 일본 국립국어연구소의 역할과 언어정책 속 다양성과 통일성의 틈새를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지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고자 한다. 한류 붐이 일고 있는 세계적 흐름 속에서 한국의 언어정책이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할지 아직 많은 고민과 과제는 남아있다. 다만 본 발표에서는 언어정책 속 언어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하고 언어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일본의 '국어에 관한 여론조사' 항목들을 바탕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2. 일본 국민 언어의식 조사의 탄생

일본의 국민 언어의식 조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어왔다. 먼저 '국어에 관한 여론조사'란 명칭으로 일본 정부 문화청이 국어(일본어) 시책에 참고하기 위해 '현대사회의 상황 변화에 따른 일본인의 국어 의식 현황'에 대해 1995년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국민 여론조사이다. 조사 대상 및 규모는 전국 16세 이상의 남녀 3,000명을 기준으로 2005년도부터는 유효 숫자 2,000명을 목표로 3,5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조사 의뢰하고 있다. 조사 방법은 개별 면접 방식으로, 조사 시기는 매년 다르지만, 일괄적으로 일반사단법인 중앙조사사(中央調査社)가 단독으로 맡아서 실시하고 있다.

이 조사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하면 일본어의 특성상 사용법이 특히 어렵다고 생각되는 경어 중심의 언어사용 부분, 관용구나 속어 부분에서 오용이 많아져 원래 그랬던 것처럼 굳어져 가는 항목에 대해 파악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조사된 결과는 일본어의 혼동(흐트러짐)이나 언어변화의 예로 매스컴 등에 많이 방송되거나 노출된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매스컴에 언급되면서 언어 오용에 대한 인지도가 개선되어 향후 올바른 언어사용으로 자리매김된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조사를 위해서 선정하는 문항들은 매년 신중하게 선택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국어에 관한 여론조사'의 성격을 이해하고 1995년부터 진행되어 온 조사의 연도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2.1. 연도별 조사 경향

아래 <표 1>은 일본 '국어에 관한 여론조사'의 주요 내용을 큰 틀에서 정리한 것이다. 일본 문화청 발표 자료를 연도별로 참고하여 요약 정리하였다.

<표 1> 일본 '국어에 관한 여론조사'

조사 연도	주요 내용
1995년도	말(언어)에 대한 사고방식 언어사용에 있어 가끔 문제가 되었던 구체적 사례 국제화 시대의 일본어 본연의 자세 워드프로세서 등의 사용과 관련된 문제
1996년도	일상생활 속 경어 및 기타 말(언어)과 관련된 문제 외래어 등의 이해도
1997년도	일상생활 속 경어 및 기타 말(언어)과 관련된 문제 한자의 글자체 외래어 등의 이해도
1998년도	경어와 언어사용에 관련된 문제 한자의 글자체 외래어 등의 이해도

1999년도	경어 또는 언어사용과 관련된 문제 국제화 시대 일본어
2000년도	언어사용의 혼란(흐트러짐)이나 일상적 인사와 관련된 언어사용 언어 교육 및 언어 환경 정보기기를 활용한 커뮤니케이션
2001년도	외래어의 인지율과 이해율 '일본의 소중함'이나 '아름다운 일본어' 일본인의 일본어 능력
2002년도	일본인의 국어 실력에 관한 과제 독서와 관련된 국민 의식 관용구나 가타카나(외래어, 외국명 등)어의 인지율·이해율·사용률
2003년도	언어사용에 관한 관심 경어의 필요성 말(언어)의 표현법 휴대전화나 이메일이 언어사용에 미치는 영향
2004년도	언어사용법 경어 한자 손글씨(필기)와 PC·워드프로세서 등에 의한 표기 향후 편지의 역할
2005년도	경어에 관한 의식 관용구 등의 의미 이해 및 사용
2006년도	정보화 시대의 한자 사용 관용구 등의 의미 이해 및 사용
2007년도	언어사용과 국어 실력 외국인과의 커뮤니케이션, 가타카나어 사용 관용구 등의 의미 이해나 사용 현황
2008년도	일본인의 국어에 관한 의식이나 이해 현황
2009년도	한자에 대한 의식 상용한자표의 재검토
2010년도	공용문서의 기본방향 일본에 사는 외국인과 일본어
2011년도	일본인의 일본어 능력 다양해지는 정보교환 수단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구두점 등의 사용법

2012년도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 가타카나어 사용 관용구의 말투(사용법)
2013년도	사회 전반에 걸친 말(언어)의 사용법 독서에 관한 제반 문제 「~る」「~する」 형태의 동사 표현
2014년도	사회나 가정에서의 말투 외국인에 대한 일본어 교육 손글씨 모양(서체)과 인쇄 글자(활자체)의 모양 말(언어)의 사용 빈도 새로운 복합어, 생략어 관용구 등의 의미와 말투
2015년도	말(언어)에 관한 관심 장면별 경의(敬意) 표현 정보화 사회 속 커뮤니케이션 문제 「ら抜き」, 「さ入れ」, 「やる/あげる」의 표현 말에 대한 감각 관용구 등의 의미·말투
2016년도	커뮤니케이션 본연의 자세·말투 상대를 배려한 커뮤니케이션 정보화 속에서의 커뮤니케이션 글쓰기의 커뮤니케이션 구체적인 장면에 있어서의 말투 새로운 표현이나 관용구 등의 의미·말투
2017년도	국어나 말(언어)에 관한 관심 구두점이나 부호 사용법 표기 규칙 메일 작성법 외래어에 대한 의식 새로운 표현이나 관용구 등의 의미와 말투
2018년도	국어나 말(언어)에 관한 관심 표기(1)-용어 등 표기(2)-문체·구성 독서에 관한 제반 문제 6가지 언어표현의 인지와 사용 관용구 등의 의미와 말투
2019년도	국어에 관한 인식 외국인과 일본어에 관한 의식 경어 말투(표현)에 관한 인상(이미지) 2010년 상용한자표 개정으로 추가된 한자의 인상(이미지) 새로운 표현에 대한 인상(이미지)이나 관용구 등의 인식과 사용

해마다 발표되는 이 조사는 국어에 관한 전반적 언어의식을 묻고, 매년 화제가 되거나 문제가 있는 항목들을 선정하여 묻게 된다. 우선 표기나 구두점, 부호 사용법과 상용한자표, 공공언어와 같이 언어 규범에 관련된 항목들이 주로 질문 대상이 된다. 그리고 경어나 외래어, 관용구 등과 같이 언어 운용 측면의 질문도 있다.

최근에는 정보화 시대로 급속히 전환되면서 발생하는 문제들, 예를 들어 편지와 같이 아날로그적 전달 수단에서 이메일, 소셜 미디어(SNS) 활용 등과 같이 디지털 쪽으로 변화하는 언어 전달 방식에 관해서도 관심을 갖고 묻기 시작했다. 또 주목할 점은 일본어의 위상과 관련하여 외국인과의 커뮤니케이션 속 일본어의 존재가치를 묻는 항목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어 가장 최근 데이터인 2019년도 조사에서는 외국인을 접할 기회(인사 정도나 가게에서 쇼핑할 때의 교환 등도 포함)가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있다'(11.2%)와 '가끔 있다'(17.7%)를 합한 '있다'는 28.9% 정도였다. 한편, '전혀 없다'(47.6%)와 '별로 없다'(23.3%)를 합한 '없다'는 70.9%였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외국인을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일본어가 나아갈 방향성을 고려할 때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항목이다. 일본의 경우 한국과는 달리 매년 조사하기 때문에 훨씬 다양한 질문을 시의적절하게 만들어 활용할 수 있다. 1995년부터 축적해온 조사 자료를 활용한다면 향후 일본의 언어정책을 입안하는 데 적극적인 반영이 가능하다.

또 하나의 예를 소개하겠다. 2004년도 조사 중 언어표현에 관한 질문이 있었다. 젊은 세대에서 주로 사용하는 표현으로 '어떠한 일에 대해 좋은지 나쁜지의 판단이 서지 않을 때의 기분'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미묘(微妙)'라는 형식의 말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다. 그 당시 유행하고 있는 언어표현으로 자신이 무언가에 곤란하고 애매한 경우에 처했을 때 사용하는 대표 표현이다. 이러한 '미묘'라는 말투가 현재는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을 초월하여 일본어 속에 침투되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조사로부터 15년이 지난 현재, 이 말투는 애매한 감정을 표현하는 일본의 대표적 표현 양식이 되어버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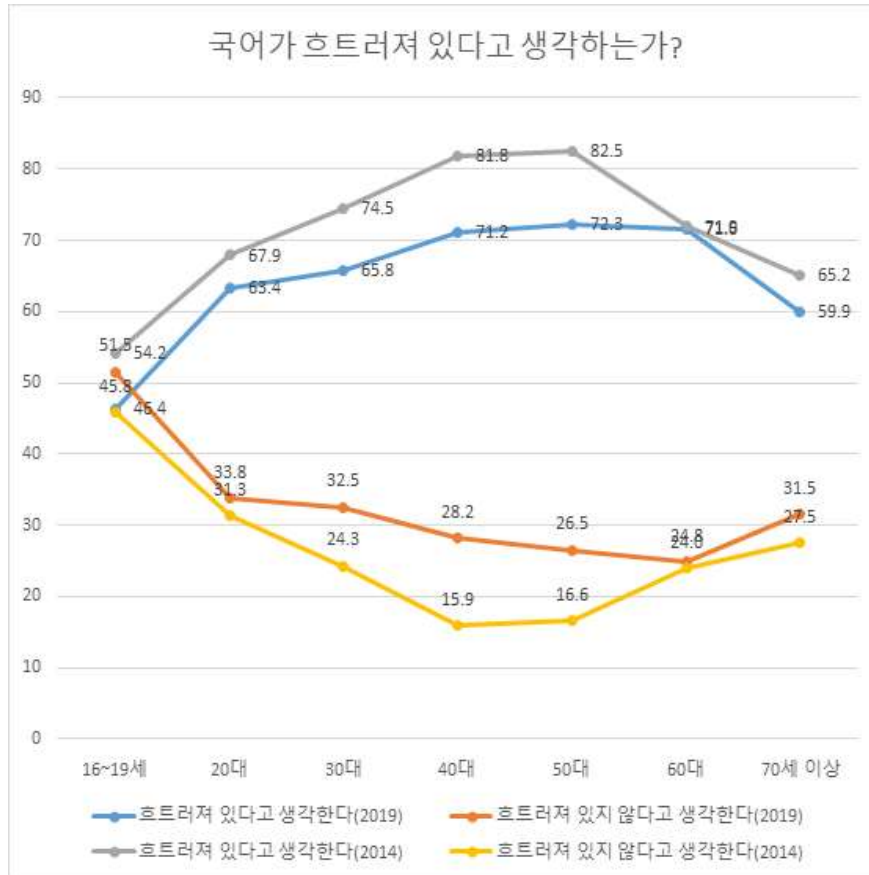
또 하나의 예로서 당시 '경어는 풍부한 표현이 많으므로 중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연령대에 상관없이 '본인이 올바른 경어를 사용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올바른 경어를 사용할 자신은 없다'고 답하였다. 그리고 명백히 오용이라고 여겨지는 경어 표현에 대해서도 본인 스스로가 옳다고 인식하는 모습이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관용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현상이 일어났다. '오명 회복(汚名返上)'이라는 관용구를 '오명 만회(汚名挽回)'로 오용하는 사례가 연령대가 높을수록 많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젊은 층에서 관용구의 오용이 잦게 일어난다는 지금까지 언어조사 흐름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이렇게 일본은 해마다 꾸준히 진행되는 국어에 관한 여론조사 덕에 일본인의 언어생활과 언어정책, 외국인이 일본어에 갖는 관심 등을 정책에 반영하고 분석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렇다면 가장 최근인 2019년의 '국어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간단히 살펴보겠다. 해마다 그랬지만 이번 조사에서도 현재 일본의 사회상황 변화에 따른 일본인의 국어에 관한 의식과 이해도에 관해 조사하였고, 일본의 국어정책 입안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일본 국민의 국어에 관한 흥미와 관심을 환기할 목적으로 전국의 16세 이상의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되었다.

앞서 제시한 <표1>과 같이 조사는 크게 '국어에 관한 인식', '외국인과 일본어에 관한 의식', '경어 말투(사용)에 대한 인상(이미지)', '2010년 상용한자표 개정으로 추가된 한자의

인상(이미지)', '새로운 표현에 대한 인상(이미지)이나 관용구의 인식과 사용'에 대해 개별 면접을 통해 조사하였다. 이 가운데 언어규범과 관련된 항목에 대해서 주로 살펴보겠다. 우선 '국어가 흐트러져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과거의 조사결과를 포함하여 아래 <그림 1>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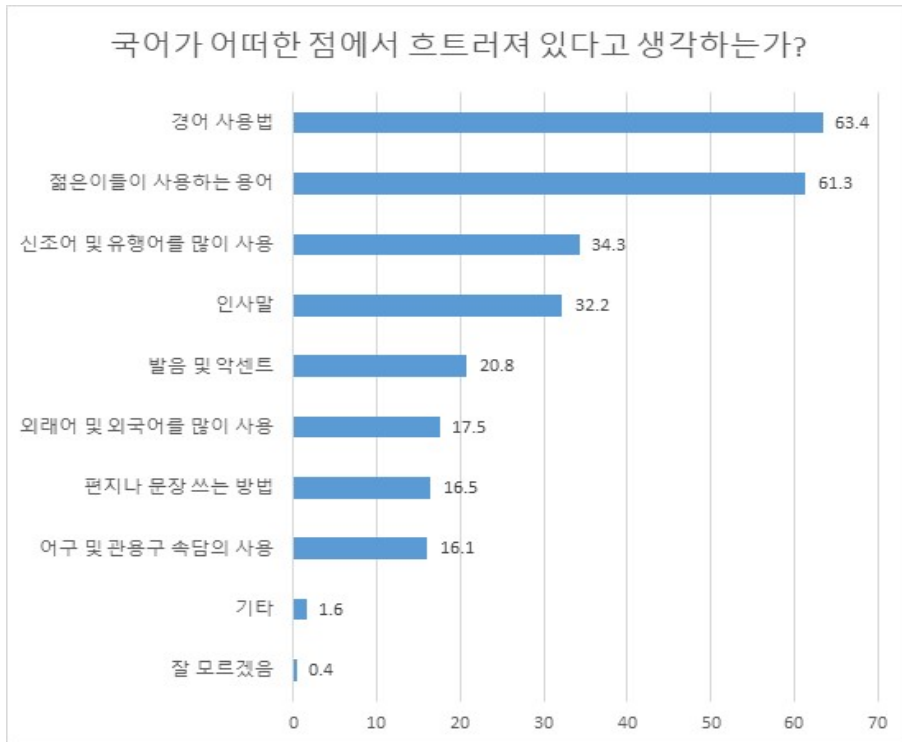
<그림 1> 국어 흐트러짐(혼란, 혼동)에 관한 설문

이번 조사에서 '국어가 흐트러져 있다고 생각한다'의 비율은 40대부터 60대까지 모두 70%를 넘겼다. 특히 2014년도 조사와 비교해 보면 '국어가 흐트러져 있다고 생각한다'의 비율은 대부분 연령에서 감소 추세에 있으며, 그중에서도 30대부터 50대까지 각각 10% 정도 감소했다. 이 질문과 관련지어 국어가 '매우 흐트러져 있다고 생각한다'와 '어느 정도 흐트러져 있다고 생각한다'를 선택한 사람에게 추가 질문을 하였다. 어떠한 점에서 국어가 흐트러져 있는지에 관하여 물었는데 그 결과는 다음 <그림 2>에 나타났다.

우선 비율이 높은 답변으로 '경어 사용법', '젊은이들이 사용하는 용어'의 비율이 60% 이상으로 다른 항목에 비해 높았다. 이어서 '신조어 및 유행어를 많이 사용(34.3%)한다'는 항목과 '인사말(32.2%)' 항목이 30%를 넘었다.

한편 국어가 '별로 흐트러져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와 '전혀 흐트러져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를 선택한 사람(30.2%)에게 국어가 '흐트러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인가'를 물어본 결과, '말은 시대에 따라 바뀌기 때문'이라고 답한 비율이 39.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조금 흐트러져 있더라도 근본적으로는 바뀌지 않기 때문'이라고 답한 비율이

29.9%로 나타났다.



<그림 2> 어떠한 점에서 국어가 흐트러져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답변

이처럼 언어는 살아 숨 쉬는 생명체와 같아서 어느 정도의 규범적 제한을 두며 통일성 있는 언어정책 유지가 필요하겠지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 조금씩 바뀌어 가는 언어표현에 대해서는 세대 간 지역 간 다양성의 인정이라는 측면에서 감내해야 할 부분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렇게 국어에 대해 많은 조사를 하고 언어정책의 최전선에서 고민하고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일본의 국립국어연구기관인 국립국어연구소의 역할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국어에 관한 여론조사'는 일본 문화청에서 주관하고 있지만, 국립국어연구소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2.2. 일본 국립국어원의 역할

일본의 국립국어연구소는 1948년 설립 이래 통계학적 수법과 컴퓨터를 활용한 어휘 조사, 방언 조사를 통한 언어지도 작성, 일본어와 외국어의 대조 연구 등 일본어와 관련된 각종 조사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2020년 기준으로 실시하고 있는 주된 국어 연구는 일본의 소멸 위기 언어와 방언 연구, 일본어 코퍼스(말뭉치)의 개발과 확충, 외국어로서 일본어교육 연구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는 다음 절에서 소개할 언어의 다양성 인정 부분과 궤를 같이 한다.

이러한 국어 연구를 진행하는 기관 국립국어연구소의 변천은 문부성 소속기관에서 문화청

소속기관 그리고 독립행정법인으로 설치 형태를 바꾸어가며 2009년 10월 이후 대학공동이용기관으로 바뀌게 되었다. 법령상 설치 목적은 '국어 및 국민의 언어생활과 외국인에 대한 일본어 교육에 관한 과학적인 조사연구 및 이에 기초한 자료의 작성과 그것을 공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어에 대해 많은 조사와 연구를 진행하는 국립국어연구소의 역할은 학술계·교육계·산업계·일반 시민 등을 대상으로 보고서·지도·데이터베이스 등의 형태로 공표하며 그것을 언어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다. 언어정책의 원천이 되는 국립국어연구소의 주된 성과물은 <표 2>와 같다.

<표 2> 일본 국립국어연구소의 주요 성과물

분류어휘표 | 오키나와어 사전 | 일본 언어지도(전6권) |
 방언문법 전국지도(전6권) | 국정독본 용어 총람(전12권) |
 일본어 구어 코퍼스 | 현대 일본어 문어 균형 코퍼스 | 일본어 역사 코퍼스

위와 같은 대부분의 연구 성과물은 기관 홈페이지(누리집)를 통해 일반 공개하고 있다. 이렇듯 일본의 국립국어연구소는 일본 정부의 문화청 산하에 있으면서도 적극적으로 언어정책의 근간이 되는 국어와 관련된 기초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또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국어정책에 의견을 개진하면서, 그 의견이 반영되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고 있음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한국에서도 이와 같이 국어정책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 언어실태 연구와 그것을 바탕으로 한 국립국어원의 의견청취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2.3. 언어정책의 통일성과 다양성의 경계

언어정책에 있어서 언어의 다양성과 통일성을 동시에 인정해야 한다는 점은 어쩌면 이율배반적 명제일 것이다. 그렇지만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앞서 살펴본 일본의 '국어에 관한 여론조사'처럼 언어정책 수립에 있어서 2가지 사항 모두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다. 언어정책의 다양성과 통일성 문제를 다룰 때 다음 <표 3>과 같이 구분하여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

<표 3> 다양성과 통일성의 관점에서 언어정책 구분

언어정책	내부로부터 발생하는 언어문제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언어문제
통일성	국어정책	영어교육
다양성	지역 방언의 탄압과 부흥	이민 언어문제

사실 <표 3>에서처럼 언어정책의 통일성과 다양성을 놓고 선을 그어 그 경계를 나눈다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이다. 다만 내부로부터 발생하는 언어문제 중 국어정책 속 언어 표기처럼 규범적 결속력은 필요하다. 이는 언어규칙이 무너지면 '국어'라는 근간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지역의 문화 보존과 다문화사회를 살아가면서 언어의 다양성은 인정해야만 한다. 예전에 탄압받았던 지역 방언이 현재는 지역 기반의 언어로서 환영받고 다문화 공생 사회 속 지역 언어 표현은 하나의 문화 아이콘으로서 제 역할을 하고 있다.

언어정책 기초가 표준어 정책 일변도가 아닌 소위 공통어로 불리며 전국에서 의사소통이 가능한 다양성을 내포하면서 동시에 통일성도 유지하는 언어정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다양성 인정 부분에서 각 지역의 언어와 문화 그리고 고유의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는 언어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 어쩌면 언어가 커뮤니케이션 수단이기에 해당 언어의 규범이 많은 사람에게 공유되면 될수록 그 언어의 가치는 커질 것이다. 그렇게 가치가 커지고 높아진 언어를 소유한 공동체는 사회적 영향력 역시 크게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큰 공동체 언어가 작은 공동체 언어와 접촉할 경우 강하고 유리한 입장의 공동체 언어만 살아남고 다른 공동체의 언어를 침식시켜 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언어에도 이와 같은 약육강식 방식이 아직까지 통하고 있지만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이를 조절하는 것이야말로 언어정책을 입안하는 사람과 기관의 소임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3. 나오며

본 발표에서는 일본의 '국어에 관한 여론조사'라는 해외조사 결과 일부를 소개하였고, 이를 통해 국어를 연구하는 기관의 역할, 언어정책의 통일성과 다양성의 경계라는 부분을 간단하게나마 살펴볼 기회를 가졌다.

일본은 '국어에 관한 여론조사'를 시작한 지 올해로 25년을 훌쩍 넘겼다. 이 조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언어정책에 관련된 자료를 축적해가고 있다. '국어에 관한 여론조사'를 해마다 실시하기 때문에 조사 당시 시의적절한 언어정책 관련 항목을 가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조사 항목 설정과 관련된 작업은 일본의 국립국어연구소와의 협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도 '국민의 언어의식 조사'는 5년 주기로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살아 꿈틀대는 생명체와 같은 언어는 지금 이 시간에도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5년이라는 주기의 '국민의 언어의식 조사'는 그 실시 주기가 너무 길지 않은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언어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는 데 있어서 생각할 진리가 하나 있다. 소위 언어정책이라는 것은 '알기 쉬운 언어 전달'이라는 측면에서 고려해야 한다. '알기 쉬운 언어 전달'이라는 것이 반드시 올바른 언어를 전달하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학교교육, 특히 국어교육에서는 일단 올바른 규범적 국어를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언어는 연령이나 성별, 지역 등에 상관없이 어휘를 사용하는 사람끼리는 공통적으로 이해하고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반론을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언어정책 측면에서 이러한 언어규범을 유지하며 올바른 문자로 쓰거나 올바른 언어로 지도하는 것은 중요하다. 사람들이 말하거나 쓰는 것에 잘못이 있을 경우 적어도 국어를 교육하고 연구하고 행정적으로 시행하는 기관에서는 적절하게 바로잡아 갈 필요가 있다. 어느 정도 시행착오를 겪어가며 고쳐 나가는 일이야말로 일반 국민이 덜 흐트러진 국어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차선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너무 통제하고 올바른 규범이라는 우리 안에 가두듯 극단적 언어정책을

펼친다면 오히려 말하거나 쓰는 것에 대한 반발심을 사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이 언어의 통일성과 다양성을 양립시키며 언어정책을 세우고 고민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고 알기 쉬운 국어정책'을 펼쳐야 하며 동시에 언어변화라는 껍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대해 일정 부분 감내할 수밖에 없다. 언어사용의 목적이나 장소에 맞는 적절한 말을 골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것이야말로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사고를 풍부하게 만드는 원동력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향후 국어정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4. 참고문헌

- 고바야시 다카시(2010), 지역어 조사 보존의 외국 사례 -일본의 경우-, 새국어생활 20-3, 57-72쪽, 국립국어원.
- 국립국어원(2005), 2005년 국민의 언어 의식 조사.
- 국립국어원(2010), 2010년 국민의 언어 의식 조사.
- 국립국어원(2015), 2015년 국민의 언어 의식 조사.
- 민현식(2002), 국어 사용 실태 조사 방법론 연구, 사회언어학 10(1), 73~112쪽, 한국사회언어학회.
- 박지수(2016), 국어 의식 조사 분석과 정책에 대한 연구-국립국어원의 '국민의 언어 의식조사'를 중심으로, 석사, 경북대학교 대학원.
- 양민호 외(2015), 『대도시 지역사회 방언 조사』 연구보고서, 국립국어원.
- 양민호(2016), 방언 연구가 나아갈 방향, 새국어생활 26-1, 65-77쪽, 국립국어원.
- 어수정(2018), 「国語に関する世論調査」の設問内容とその分布, 일본어문학 83, 181~200쪽.
- 이노우에 후미오 저, 김덕호 외 역(2015), 『경제언어학 언어, 방언, 경어』, 역락.
- 정승철 외(2014), 『방언의 조사 활용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연구보고서, 국립국어원.
- 홍민표(2004), (주요 국가의)사회언어학 연구 동향, 116~154쪽, 국립국어원.
- 洪珉杓(2006), 日韓両国人の言語行動の違い(8)敬語意識の日韓比較, 日本語学 25, 78~89쪽,大修館書店
- 蒲谷宏(2006), 敬語表現教育の方法, 大修館書店.
- 小林隆(2004), アクセサリーとしての現代方言, 社会言語科学, 第7巻 第1号, 105-107쪽, 社会言語科学会.
- 木部暢子(2015), 方言研究の過去 現在 未来, 日本方言研究会第100回研究発表会, 創立50周年記念企画 記念シンポジウム予稿集.
- 滝浦真人(2017), 敬語の対象研究への新視点-二つのアプローチと二つの敬語, 日本語学 36, 52~62쪽, 大修館書店.
- 田中ゆかり(2011), 『「方言コスプレの時代」』, 岩波書店.
- 徳川宗賢 編(1979), 『日本の方言地図』, 中公新書, 中央公論社.
- 佐藤亮一 監修(2002), 小学館辞典編集部 (編) 『お国ことばを知る方言の地図帳』 新版, 小学館.
- 洞澤伸(2011), 若者たちが使用する『ぼかし言葉』"~かな, みたいな"と"~って感じ"の語用論的機能, 41~49쪽, 岐阜大学地域科学部研究報告 (28).
- 野間秀樹(2012), 『韓国語教育論講座』 第2巻, 521~570쪽, くろしお出版.
- 文化審議会答申(2007), 敬語の指針, 1~77쪽, 文化庁.
- 文化庁 『国語に関する世論調査』の結果について(平成7年~令和元年).
- 油谷幸利(2006), 『日韓対照言語学入門』, 白帝社.

<https://ja.wikipedia.org/wiki/%E6%97%A5%E6%9C%AC%E8%AA%9E%E3%81%AE%E6%96%B9%E8%A8%80/>.

<http://www2.ninjal.ac.jp/keinen/turuoka/outline.html>